

# 광주 아픔 보듬고 진상규명 앞장 '오월정신 구심점'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3부-5·18기념재단 30주년  
<상> 5·18 명예회복 계기 마련

1980년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광주에서는 오월의 진실을 알리고 정신계승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할 뚜렷한 단체는 없었다.

5·18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6·29 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5·18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비로소 싹텄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던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5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가칭) 5·18기념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각각 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2개의 재단이 출범할 뻔 하는 등 5·18 관련 단체간 갈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재단 설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5·18민주화 운동 14년 만인 1994년 8월 30일 재단

기금·보상금 등 출연 1994년 설립  
책임자 처벌·특별법 제정 큰 역할  
5·18 정신 지구촌 곳곳 전파하고  
DB·아카이브 등 역사 기록 구축  
민주·대동정신 계승 발전에도 힘써

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바로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5·18기념재단이다.

재단의 탄생은 5·18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한 광주 시민을 포함한 국민기금과 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부상자·유가족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출연한 결실이었다.

설립 초기 재단의 활동은 5·18학살책임자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 운동을 위주로 진행됐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 신평화관에 첫 터를 잡은 재단은 학살책임자 처벌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이런 노력은 1995년 '5·18학살책임자 처벌특별법' 제정과 1997년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형 등 관련자 처벌 확정으로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새로운 5·18묘지가 준공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재단은 교육·문화·연대·기념사업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재단이 현재의 5·18기념문화센터로 이전하고, 2005년 정부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재단은 5·18세계화를 통한 전국화를 이룩하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찾은 화순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오월영령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자 국내·외 교류연대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 민주화를 염원하는 제3국에서는 5·18이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불리기도 하는 성과를 냈다.

교육사업도 기존 장학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청소년 체험학습, 교육자 양성, 공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다양화됐다. 이는 젊은 세대와 함께 5·18정신을 미래로 계승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밖에도 재단은 5·18 관련 자료의 수집과 발굴, 활용에 관한 사업을 주도했다.

지난 1999년 광주시의 인력 지원을 받아 '5·18피

해자실태 파악 및 관련자 증언채록사업'을 시작했던 재단은, 2001년 5·18기념문화센터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구술채록사업, 해외동포운동사 자료수집사업을 비롯해 DB·웹아카이브 구축도 함께 이뤄졌다. 축적된 기록물과 진상조사사업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5·18기록물이 등재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2년에는 5·18기록관이 공개되어 시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기록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됐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으면서 진실조사와 가짜뉴스 대응 사업도 지속했다.

지난 2018년에는 재단에 '고백과 증언 센터'가 설치되는 등 진실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일빌딩 헬기 사격 진상규명, 행방불명자 찾기, 압매장 추정지 발굴, 5·18 성폭력 조사 등에 앞장서 대차했다.

박근혜 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30주년을 맞는 5·18재단은 과도기에 놓여 있다"면서 "5·18 50주년을 앞두고 광주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도록 전기를 마련해야 할 변화의 시기"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호진군이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5·18 왜곡 게임 제보 이호진군 광주 방문 "시민 아픔 왜곡하는 가짜 뉴스 사라져야죠"

광주시 표창장·시교육감상 받아

"이 곳(금남로)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폭동, 북한군 침투설 등으로 왜곡하는 가짜 뉴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으로 삭제 조치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의 문제점을 언론 등에 제보한 이호진(12·부산 과정초 6년)군이 13일 광주를 방문했다.

이군은 이날 5·18 왜곡·폄훼 근절에 앞장 선 공

로로 광주시 표창장과 광주교육감상을 받았으며, 이후 5·18기록관과 전일빌딩245 등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5·18 역사를 공부했다.

이군은 "5·18기념재단 오월길 안내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요즘도 '광주 폭동'이란 말을 하느냐", '여자도 무차별 구금당했느냐', '계엄군이 곤봉으로 머리도 때렸느냐'는 등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과 분수대를 볼 때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이 분수대에 운집해 있는 사진과 연신 비교해가며 "이 곳이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총

을 쏜 곳이다"며 눈을 반짝였다. 글을 잘 모르던 6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군이 로블록스에서 발견한 5·18 관련 게임은 총 3개로, 그 중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던 '그날의 광주' 게임을 접했을 때 이군은 '역사 왜곡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군은 "민주화를 꿈꾸던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폭동', '북한군 소행'일 리가 없다"며 "더 황당한 건 게임 제작자가 '영화 택시운전사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더구나 제작자는 디스코드(메신저 프로그램)에 '안기부'라는 방을 만들고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용자들을 협박했다"며 "로블록스에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두 차례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군의 제보로 로블록스는 사과하고 해당 게임을 삭제 처리했다.

이군은 "좋아하는 역사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공부할 열심하게 해야 KTX 기장이 되는 것이 꿈이다"며 "이런 계기로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군의 부모는 "일부 이용자들이 아들의 신상을 알아내 2차 가해 게임을 제작하거나 일부 사용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도 2차 가해자 17명을 고소 조치했다.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수백명이 되더라도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

## "진상조사위 운영 한계·부실조사로 난맥 자초"

조사위 활동 교수들 토론회서 지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운영 한계와 부실 조사로 진상규명 난맥을 자초했다는 내부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희송·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13일 열린 전남대 공익인권센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 선정, 조사 개시·진상규명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들이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진상조사위의 직권조사 사건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목소리가 아닌 왜곡·폄훼의 주장과 공명한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으로 진상조사위가 압수수색·청문회 등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한계와 부실 조사 등이 거론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관이 4년 동안 33명이 퇴직하는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 연속성과 전문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해마다 이월·불용처리하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마지막 해인 2023년에도 예산 집행률은 82.9%에 그쳤으며 이 중 5·18진상규명 지원사업 집행률은 69.1%

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진상 규명 불능' 결정된 6개 직권조사 사건 중 4개는 대부분 조사 내용이 부실해 사실 그 자체가 규명되지 않았고, 청문회 또한 청문회준비소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을 묵살하다가 결국 무산됐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민 교수는 "당초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출범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과를 신설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비효율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았다"는 등 지적을 내놨다.

민 교수는 위원회의 고발·수사요청 등 강제력이 약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등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토론 발제자로 참석해 "공청회와 청문회를 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으며, 각 진술에 대한 검증조차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만 하는 등 문제로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계엄군의 '자위권 차원의 발포' 주장을 옹호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조사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